



심기석 윤리위원장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으로 업계 질서 정립에 적극 나설 터”

협회 최초로 여성 윤리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운영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협회 윤리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업계

발전에 공헌한 회원사 및 외부인에 대한 포상은 물론 업계 및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사에 대한 징계 등 업계 및 협회의 품위보전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까지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연세드신 분들이 위원장을 역임하며 회원사를 리드해 왔습니다.

제9대 회장을 맡은 이상일 회장님은 협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걷는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 25년을 발판삼아 향후 100년을 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회 내부의 소통과 혁신이 연동되어야만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고 조직의 경쟁력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00년을 향한 도전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업계 및 협회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리위원회가 포상실시 위주로 운영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회원사를 제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만 침체된 우리업계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이상일 회장님께서 이러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책임자로 저를 지목하며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윤리위원장을 맡기에는 젊은 축에 속하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이상일 회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알고서 수락하였습니다.

회장님의 이러한 생각에 부합하기 위하여 우선 협회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은 분들을 윤리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협회 일을 오래 하다보면 타성에 젖어서 기존의 흐름에 따라가는 경향이 많기에 참신한 아이디어나 강력한 제재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의를 몇 번 해본 결과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운 인물 구성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리위원회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개최되었지만 이번 윤리위원회는 협회 및 업계의 윤리 정립과 관련하여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개최하자는 의견에 따라 공식, 비공식으

로 자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포상 시 부상품으로 은수저를 주고 있는데 이 은수저는 지난 25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는 은수저가 아닌 상품권으로 대체할 것과 책을 한권 사서 그 사이에 상품권을 끼워주는 방안을 협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회원사에 대한 포상은 각 시도회 및 공중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면 윤리위원회는 그냥 통과시키는 형식상의 심의만 하여왔는데 앞으로는 여러 회원사를 추천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거마비도 모아서 나중에 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일에 쓰자는 의견에 따라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디에 쓸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불우이웃을 돕는 등 보람있는 일에 쓰여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듯 과거 윤리위원회에 비해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회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 혁신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고쳐서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윤리위원회도 창조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윤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윤리는 우선 기업의 목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보편타당한 가치 속에서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신뢰를 주는 것이

기업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잘난 척 해놓고 뒤에서는 판짓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기업이 가는 길은 언제나 바른 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한계가 있으며 언젠가 들통이 나기 마련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참으로 곧은 길은 굽어보인다고 했습니다. 바른 길로 갈 때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나도 간혹 ‘조금만 더’ 하는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경영상 가지 않았던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의 윤리는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술 사주고, 밥사주는 것은 기업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윤리경영을 외치면서 하도급업체들이 몇십억원 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합니다. 적어도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들이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야말로 윤리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발주기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이러한 횡포에 대항하고 큰소리를 내려면 우선 우리 자신부터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내실있는 기업을 만드는 방법은?

공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익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도장을 찍은 공사는 잘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본다고 해서 대충대충 하다보

면 기업의 이미지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자발생으로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건설공사에서 대충대충은 나중에 더 큰 재앙을 초래합니다.

또 모두들 어렵고 힘든 공사는 안하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런 공사를 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공사를 맡는 것은 실력있고 유능한 직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믿고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세상 일이란 참으로 묘합니다. 어렵고 힘든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내면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가 들어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책임도 지게 하는 게 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연구를 하게 되고 성실히 일해서 회사에 이익을 남겨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인정받게 됩니다. 또 책임감이 부여되면 개인의 생각만이 아닌 회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일을 하게 되므로 그 직원은 훌쩍 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돈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돈이 없으면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1, 2억은 남기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며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부도나게 됩니다. 또 이익을 남겨야 직원들에게 월급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월급만 주는 사장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직원들에게 간식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좋은 사장이란 어디가서 멋있는 연설을 해서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최고’라고 말할 때, 직원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최고의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이윤이 성과급, 복지, 그리고 기술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회사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부실해지면 안 됩니다.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이득을 남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저 가수주처럼 시작부터 밀리는 공사를 하다보면 실

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결코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우선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는 인력이 모자라서 관리적인 부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인력이 많다 보니 시스템화 되어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직원이 이일 저일 두 세가지씩 맡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또 유희인력이 없다 보니 공사를 수주하면 샅드로잉, 공무를 구하느라 난리가 납니다. 요즘은 공무분야 인력이 매우 부족해서 중간급 관리자인 대리, 과장을 구하기 힘듭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실컷 키워놓으면 대기업에서 스카웃 합니다. 저도 많이 뺏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놓아주면서 가서 많이 배우고 때가 되면 다시 오라고 합니다. 대기업은 수명이 짧기 때문이죠. 대기업에서는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울수 있기에 그들이 나중에 오면 우리회사에 득이 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뺏기지 않으려면 기술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하고 회사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비전이 좋은데 굳이 옮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회사가 부실해지면 안되겠지요.

향후 윤리위원회 운영 방침은?

우리협회는 지금까지 제살 깎아먹기 식의 저가수주를 지양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협회가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다 보니 구호에만 그칠 뿐, 저가수주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가수주를 지양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제9대 윤리위원회의 최대 과제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조만간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가수주를 하는 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게끔 가슴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가수주 방지와 건전한 입찰환경 조성에 공로가 있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상패와 부상품만 아니라 조합 이용 시 수수료 감면이나 기업평가 혜택을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적인 회원사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상을 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업계 및 협회 질서를 바로잡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제9대 윤리위원 〉

직 위	성 명	상 호 · 직 함
위원장	심기석	세일이엔에스(주) 대표
부위원장	이종원	대원엠이씨(주) 대표
위 원	박정필	중원엔지니어링(주) 대표
	이건영	(주)엠케이지 대표
	이계영	다림건설(주) 대표
	이원재	삼우설비(주) 대표
	조종택	금주이엔씨(주) 대표
	최두현	(주)동양이엔씨 대표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